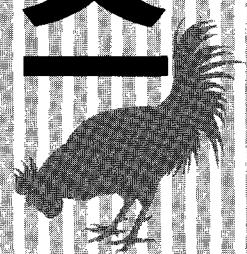


해외양계



홍콩

1인당 닭고기 소비량 1위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농무성(USDA)이 발표한 금년도 국별 가금류 소비량 추정 보고에 의하면 홍콩의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이 지난해 보다 1.3kg 증가한 46.2kg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위는 지난해 보다 2.3kg이 증가, 40.9kg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이 차지하였고, 중동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32.3kg으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닭고기 생산량으로 보면 미국(1천95만8천톤), 중국(6백55만5천톤), 브라질(3백88만톤) 순으로 각각 예상되었다.(MJ)

독일

산란계 평사사육 비율 증가

독일에서는 산란계에 있어서 해가 갈수록 케이지 사육이 줄고 평사사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에서 3,000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1996년 1,409농가에서 1361농가로 감소하였으며 그 사육규모도 4,140만수에서 3,970만수로 감소하였다. 1996년 당시 케이지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수가 1,242농가로 전체 농가중 9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94년 94.9% 보다 감소한 숫자이다. 지난해 조사된 케이지 사육 농가 비율은 89.7%(3,560만수)로 더욱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방사로 키워진 닭들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일반란 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닭들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져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PI)

슬로베니아

닭고기 자가 소비율 증가추세

동유럽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부터 2003년까지

소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33%에서 154% 까지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1997년 생산된 닭고기 생산량은 총 61,000톤으로 수입이 3,000 톤 이었던데 비해 수출은 17,000톤을 기록되었다. 그러나 오는 2003년에는 생산량이 총 73,000 톤으로 오히려 수입이 2,000톤으로 줄고 수출은 2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PI)

카자흐공화국

닭고기 인기 상승

카자흐공화국에서는 최근 닭고기가 타 육류에 비해 저렴하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이루어 지면서 닭고기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 1993년에 비해 12%가 증가한 15.3kg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의 영향으로 1인당 겨우 0.4kg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PI)

미국

수출 감소

미국의 닭고기와 계란의 수출이 올 1/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의 수출실적은 585.2백만 불로 지난해 613백만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중동시장으로의 수출(특히 식란)이 28%로 낮아졌고 일본으로의 수출도 20%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WP)

HACCP 실시 후 닭고기 살모넬라 감소

미농무성(ASDA)에 따르면 클린턴 정부가 위생적인 육류생산을 목적으로 육류 및 가금육 등에 적용하고 있는 HACCP 실시 이후 살모넬라 오염이 거의 절반가량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조사대상 닭고기의 20%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나 시행후에는 10.4%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MJ)

중국

경제위기로 양계산물 수출에 큰 차질

중국은 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내의 불안한 경제동향으로 인해 수출에 큰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5개월간 가금육 수출은 899만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5%가 감소했으며 냉동 닭고기 수출은 23.4%, 신선란 수출은 16.4 %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WP)

일본

'99 동경식육산업전 개최

일본에서 개최될 '99식육산업전이 내년 3월 9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동경 빅사이트 서관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될 예정이다.

출품규모는 150개사 350개 부스로 약 4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닭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가공품 및 신제품을 소개하는 '빅 미트 페스타' 등 다양하게 개최될 예정이다.(MJ)